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2년 8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6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2년 7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60,566	9.2	65,371	21.8	-4,805
일본 부분	2,522	-1.7	4,545	0.2	-2,023
일본 비중	4.2		7.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7월 상황

	2021년 7월	2022년 7월	증감률
수출(백만¥, %)	7,354,679	8,755,226	19.2
수입(백만¥, %)	6,920,182	10,189,162	47.2
수지(백만¥, %)	434,497	-1,433,93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8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2년 4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0,826	2,761	10,787	4,153	14,325	-2,062
한국 부분(억¥)	87	74	279	114	8	71
한국 비중(%)	0.8	2.7	2.6	2.7	0.1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6월 8일, 7월 8일, 8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7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7월	2022년7월	증감률		2021년7월	2022년7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83,005	263,986	218.0	전체	51,055	144,500	183.0
방한 일본인	881	11,789	1238.1	방일 한국인	1,808	20,400	1028.3
일본인 비중	1.06	4.47		한국인 비중	3.54	14.12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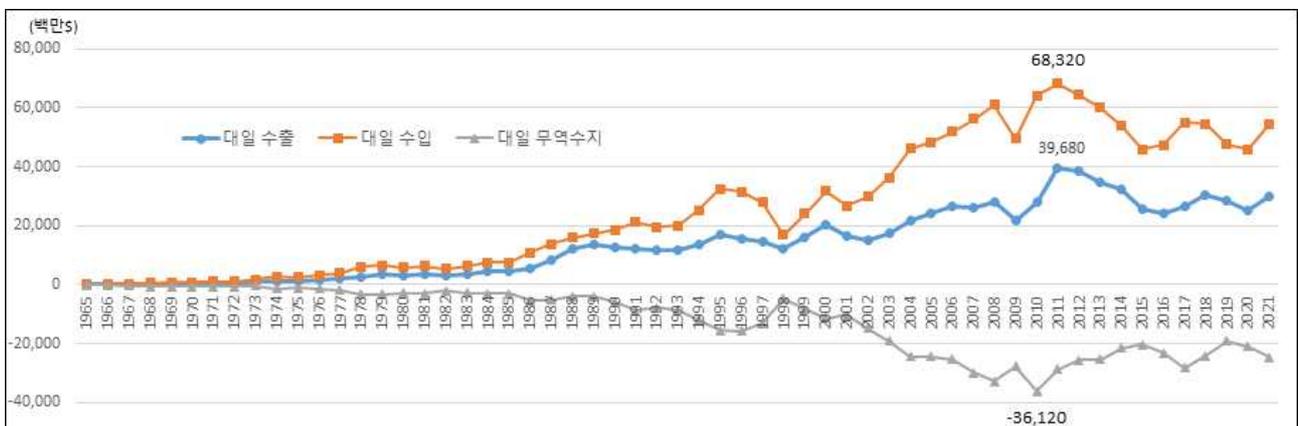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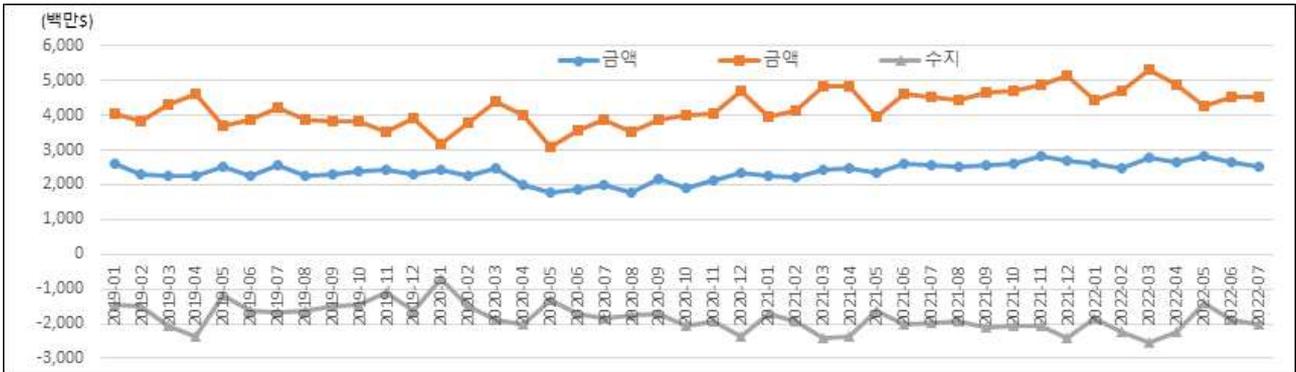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2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6.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2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1년에는 대일 수출(300.6억 달러)과 수입(546.4억 달러)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보다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245.8억 달러)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2년 8월에는 전월대비 수출은 감소하였고 수입은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7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7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7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2년 7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2년 7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7% 감소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0.2%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2년 7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60,566	9.2	65,371	21.8	-4,805
일본 부분	2,522	-1.7	4,545	0.2	-2,023
일본 비중	4.2		7.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7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하여 605.7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1.7% 감소하여 25.2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7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하여 653.7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0.2% 증가하여 45.5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7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48.1억 달러 적자였고, 대일 무역수지는 20.2억 달러 적자였음
- 2022년 7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2%였고, 수입 경우는 7.0%였음

○ <표2> 및 <표3>은 2022년 7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3개 품목이, 수입 경우는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2년 7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7월(백만\$, %)			2022년 7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565	28.3	-1,972	2,522	-1.7	-2,023
1	광물성연료	447	85.1	371	354	-20.8	273
2	철강제품	306	26.6	-383	344	12.6	-297
3	정밀화학제품	191	-1.7	-174	238	24.8	-113
4	석유화학제품	171	107.2	-95	226	32.2	-63
5	전자부품	173	46.8	-507	172	-0.7	-758
6	금속광물	168	46.5	103	117	-30.2	20
7	산업용전자제품	123	-0.5	-105	99	-19.7	-111
8	농산물	100	2.0	79	98	-2.1	76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78	15.8	-44	73	-6.8	-39
10	산업기계	74	18.2	-98	72	-2.8	-90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2년 7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7월(백만\$, %)			2022년 7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4,537	17.5	-1,972	4,545	0.2	-2,023
1	전자부품	680	-4.1	-507	930	36.7	-758
2	철강제품	688	93.5	-383	641	-6.9	-297
3	정밀기계	480	7.9	-418	468	-2.4	-406
4	정밀화학제품	364	2.6	-174	351	-3.6	-113
5	석유화학제품	265	40.1	-95	289	8.9	-63
6	산업용전자제품	228	-3.3	-105	210	-7.6	-111
7	기초산업기계	196	-0.5	-126	174	-11.3	-104
8	산업기계	172	14.0	-98	162	-5.8	-90
9	플라스틱제품	207	0.8	-141	149	-28.0	-90
10	수송기계	213	39.8	-149	148	-30.5	-87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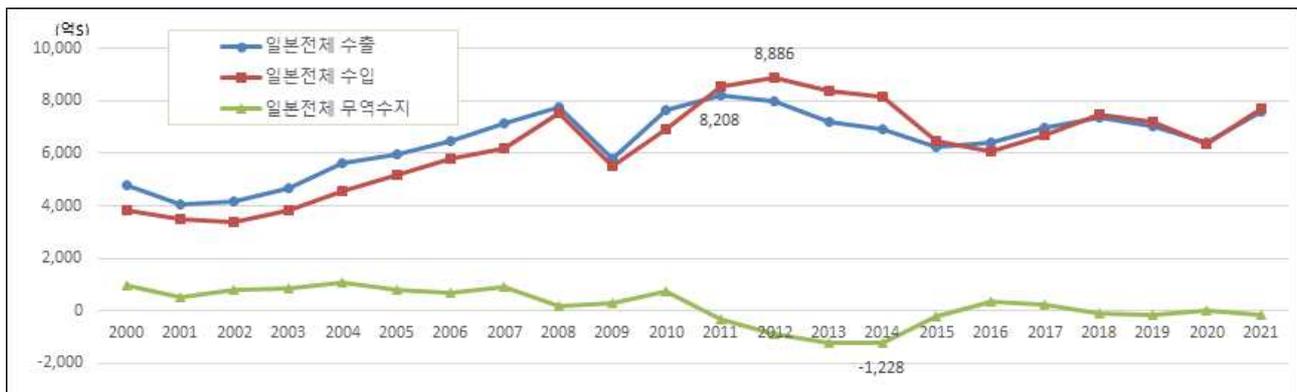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32.2%), 정밀화학제품(24.8%), 철강제품(12.6%) 3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금속광물(-30.2%), 광물성연료(-20.8%) 등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자부품(36.7%), 석유화학제품(8.9%)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수송기계(-30.5%), 플라스틱제품(-28.9%)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 2020년 흑자, 2021년 적자로 나타남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399억 달러, 수입은 6,357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42억 달러 흑자였음
- 2021년 일본전체 수출은 7,586억 달러, 수입은 7,716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는 130억 달러 적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7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7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흑자에서 당월 흑자로 전환되었음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7월 상황

	2021년 7월	2022년 7월	증감률
수출(백만¥, %)	7,354,679	8,755,226	19.2
수입(백만¥, %)	6,920,182	10,189,162	47.2
수지(백만¥, %)	434,497	-1,433,93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8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광물성연료, 반도체등전자부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9.2% 증가하여 8조 7,552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7.2% 증가하여 10조 1,892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4,345억 엔 흑자에서 당월 1조 4,339억 엔 적자로 전환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7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8.2%, 수입의 46.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3,997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수출의 20.4%, 수입의 21.7%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4,242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4%,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737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2%, 수입의 4.3%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934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1%, 수입의 3.9%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한(對韓) 무역흑자는 2,264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8.0%, 수입의 10.4%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미(對美) 무역흑자는 5,154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8%, 수입의 2.3%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5%, 수입의 0.6%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7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8,755,226	100.0	19.0	10,189,162	100.0	47.2	-1,433,936	-
아시아	5,095,936	58.2	21.1	4,696,212	46.1	38.5	399,724	-51.1
중국	1,782,613	20.4	12.8	2,206,764	21.7	34.7	-424,151	628.1
홍콩	383,327	4.4	13.5	9,642	0.1	1.9	373,685	13.9
대만	629,723	7.2	17.0	436,306	4.3	37.5	193,417	-12.4
대한민국	619,380	7.1	32.9	392,958	3.9	28.8	226,422	40.8
싱가포르	318,320	3.6	59.9	106,907	1.0	20.9	211,413	91.1
태국	388,757	4.4	11.8	298,282	2.9	23.9	90,475	-15.4
말레이시아	199,786	2.3	53.7	325,232	3.2	91.4	-125,446	214.6
인도네시아	175,066	2.0	36.7	347,543	3.4	97.6	-172,477	260.4
필리핀	155,073	1.8	42.0	116,850	1.1	7.1	38,223	*341
베트남	216,681	2.5	13.2	291,026	2.9	28.6	-74,345	113.1
인도	160,034	1.8	41.8	71,886	0.7	42.1	88,148	41.5
대양주	224,291	2.6	1.9	1,186,776	11.6	126.1	-962,485	215.7
호주	175,299	2.0	-3.4	1,075,949	10.6	131.5	-900,650	217.9
뉴질랜드	31,096	0.4	3.7	33,050	0.3	15.0	-1,954	-
북미	1,667,144	19.0	14.2	1,234,033	12.1	45.4	433,111	-29.2
미국	1,578,241	18.0	14.1	1,062,883	10.4	47.0	515,358	-22.0
캐나다	88,903	1.0	15.9	170,341	1.7	36.7	-81,438	70.0
중남미	295,362	3.4	1.9	401,900	3.9	28.3	-106,538	354
서유럽	944,730	10.8	30.1	920,499	9.0	7.5	24,231	-
독일	248,041	2.8	34.9	231,425	2.3	20.2	16,616	-
영국	127,773	1.5	40.3	64,666	0.6	-5.3	63,107	177.0
프랑스	72,708	0.8	9.8	93,655	0.9	19.0	-20,947	68.0
네덜란드	138,873	1.6	25.3	28,772	0.3	1.1	110,101	33.6
이탈리아	60,528	0.7	46.3	118,681	1.2	16.3	-58,153	-4.2
벨기에	82,107	0.9	24.5	23,665	0.2	-71.5	58,442	-
스위스	36,892	0.4	3.9	88,255	0.9	28.9	-51,363	55.9
스웨덴	17,279	0.2	56.5	32,718	0.3	13.1	-15,439	-13.7
아일랜드	28,995	0.3	270.0	55,493	0.5	24.6	-26,498	-27.8
스페인	31,286	0.4	23.5	58,944	0.6	-8.8	-27,658	-29.6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62,940	1.9	-7.3	253,160	2.5	28.2	-90,220	315.2
중동	234,767	2.7	20.4	1,313,030	12.9	98.0	-1,078,263	130.2
아프리카	130,057	1.5	62.8	183,553	1.8	45.2	-53496	15.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8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7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모두 9개 품목 전부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광물성연료(142.3%), 기타(30.8%)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기타(4.1%), 일반기계(3.3%), 수송용기기(3.1%)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126.0%), 일반기계(32.3%)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24.5%), 전기기기(5.0%), 기타(3.8%)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7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8,755,226	100.0	19.0	19.0	10,189,162	100.0	47.2	47.2
1 식료품	100,236	1.1	21.6	0.2	817,973	8.0	30.7	2.8
2 원료품	135,985	1.6	17.8	0.3	705,854	6.9	16.7	1.5
3 광물성연료	201,898	2.3	142.3	1.6	3,045,452	29.9	126.0	24.5
4 화학제품	1,016,928	11.6	15.9	1.9	1,044,578	10.3	28.4	3.3
5 원료별제품	1,022,510	11.7	16.3	1.9	902,493	8.9	31.3	3.1
6 일반기계	1,662,326	19.0	17.3	3.3	850,961	8.4	32.3	3.0
7 전기기기	1,544,818	17.6	13.8	2.5	1,454,534	14.3	30.9	5.0
8 수송용기기	1,794,962	20.5	14.6	3.1	231,862	2.3	8.0	0.2
9 기타	1,275,563	14.6	30.8	4.1	1,135,454	11.1	30.3	3.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8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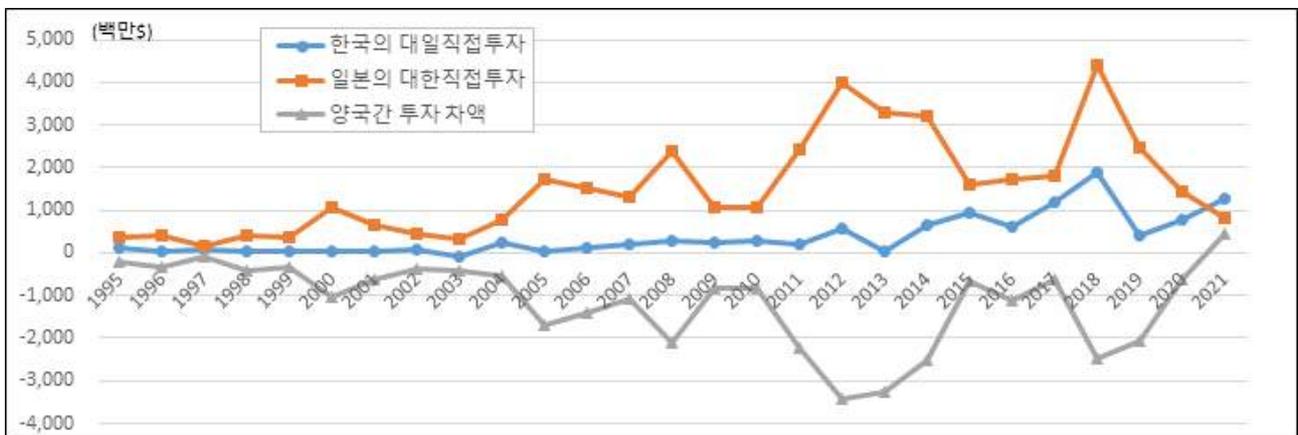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2021년에는 역전되었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21년 경우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한일간 갈등 및 COVID-19 등으로 연속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12.60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273.25억 달러의 4.61%를 차지하였음
- 2021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8.25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498.14억 달러의 0.55%를 차지하였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보다 4.35억 달러 많았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2년 4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0,826	2,761	10,787	4,153	14,325	-2,062
한국 부분(억¥)	87	74	279	114	8	71
한국 비중(%)	0.8	2.7	2.6	2.7	0.1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6월 8일, 7월 8일, 8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5월 10,787억 엔에서 6월 14,325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2년 5월 279억 엔에서 6월 8억 엔으로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4월 2.6%에서 5월 0.1%로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5월 4,153억 엔으로 플러스였으나, 6월에는 -2,062억 엔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2년 5월 114억 엔에서 6월 71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460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15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845억 달러로 되었음
- 2021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1,498억 달러,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273억 달러로 되었고,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1,225억 달러로 되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2년 5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14,325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2,062억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4,325억 엔(실행 51,342; 회수 37,017)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37.2%), 유럽(32.0%), 아시아(23.4%)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대외직접투자 순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미국(5,241억 엔), 네덜란드(1,308억 엔), 독일(1,261억 엔) 등이었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2,062억 엔(실행 34,051; 회수 36,112)으로 마이너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경우는 플러스였고, 대

- 양주, 유럽, 북미, 중동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플러스 순투자를 많이 한 곳은 홍콩(1,194억 엔), 싱가포르(218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2년 6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합계	51,342	37,017	14,325	100.0	34,051	36,112	-2,062	100.0
아시아	9,006	5,647	3,359	23.4	8,858	7,506	1,352	-65.6
중국	1,547	378	1,169	8.2	1,925	1,997	-72	3.5
홍콩	427	238	189	1.3	1,831	636	1,194	-57.9
대만	155	75	80	0.6	147	79	68	-3.3
한국	119	112	8	0.1	74	3	71	-3.4
싱가포르	4,517	3,562	955	6.7	3,936	3,719	218	-10.6
태국	400	153	247	1.7	891	1,049	-158	7.7
인도네시아	503	480	23	0.2	26	1	26	-1.3
말레이시아	220	138	82	0.6	25	22	3	-0.1
필리핀	174	126	48	0.3	1	—	1	0.0
베트남	680	291	389	2.7	1	—	1	0.0
인도	164	24	140	1.0	-0	—	-0	0.0
북미	22,407	17,072	5,335	37.2	7,981	8,273	-292	14.2
미국	21,934	16,693	5,241	36.6	7,973	8,273	-300	14.5
캐나다	474	379	94	0.7	8	—	8	-0.4
중남미	1,721	1,095	625	4.4	457	220	237	-11.5
멕시코	182	152	30	0.2	16	—	16	-0.8
브라질	56	57	-1	0.0	—	—	—	—
케이만제도	305	414	-109	-0.8	192	75	117	-5.7
대양주	429	142	287	2.0	1,844	4,965	-3,121	151.4
호주	309	37	272	1.9	1857	4533	-2,677	129.8
뉴질랜드	109	77	32	0.2	2	—	2	-0.1
유럽	16,447	11,862	4,585	32.0	14,751	15,111	-360	17.5
독일	3,871	2,610	1,261	8.8	1,890	2,075	-185	9.0
영국	3,172	2,637	534	3.7	6,711	6,510	201	-9.7
프랑스	704	279	425	3.0	389	420	-31	1.5
네덜란드	1,624	316	1,308	9.1	1,643	2,953	-1,310	63.5
이탈리아	430	109	322	2.2	1,397	1,399	-2	0.1
벨기에	1,904	2,307	-403	-2.8	545	541	4	-0.2
룩셈부르크	2,037	1,695	342	2.4	13	10	3	-0.1
스위스	121	75	46	0.3	887	718	169	-8.2
스웨덴	128	111	17	0.1	14	39	-25	1.2
스페인	19	8	11	0.1	145	145	0	0.0
러시아	32	10	23	0.2	—	—	—	—
중동	171	160	11	0.1	29	38	-8	0.4
아프리카	1,161	1038	123	0.9	130	—	130	-6.3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8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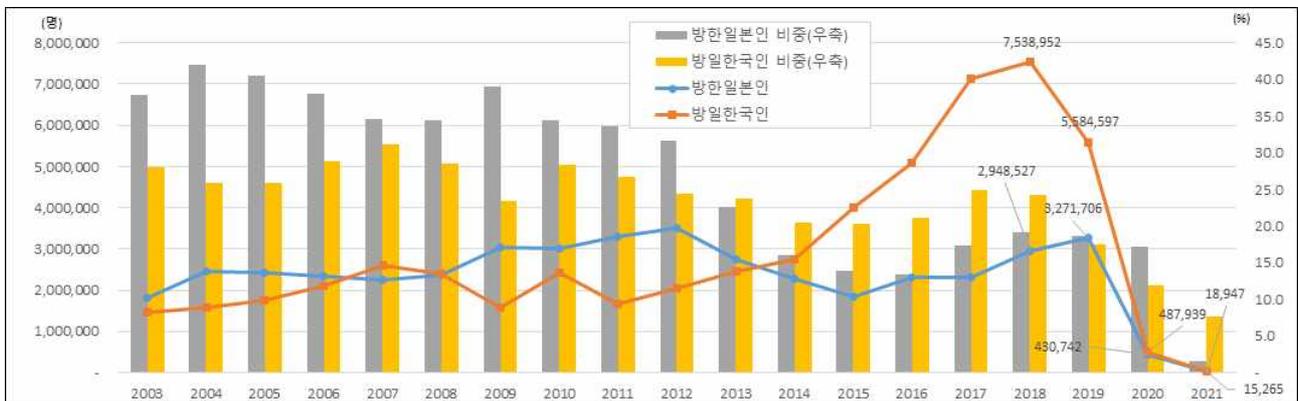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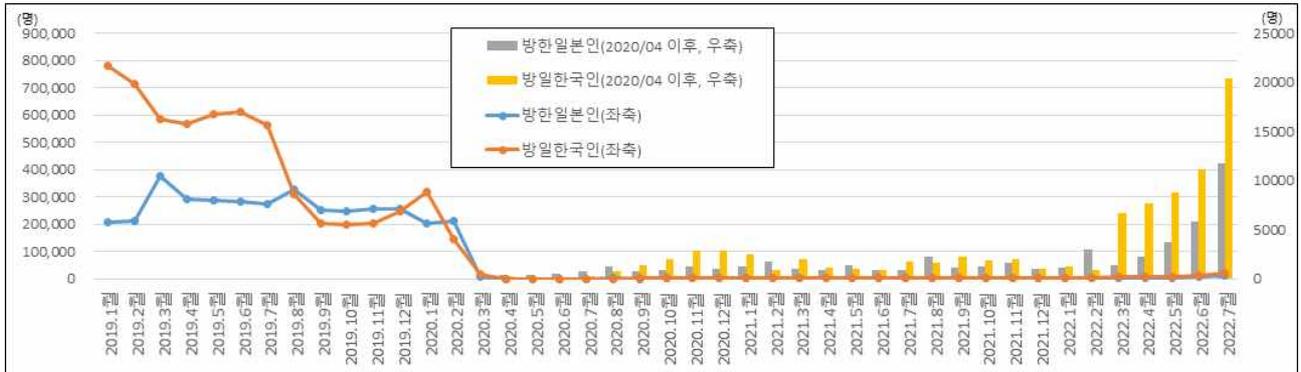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3,271,706명에 달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430,742명으로, 2021년에는 15,265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9년 18.7%, 2020년 17.1%에서 2021년에는 1.6%로 감소하였음(방한외국인 총수는 2019년 17,502,756명, 2020년 2,519,118명, 2021년 967,003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38,952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감소하여 5,584,597명이 되었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487,939명, 2021년에 18,947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방일외국인 총수의 증가에 기인), 2019년 17.5%에서 2020년 11.9%, 2021년에는 7.7%로 감소하였음(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31,882,049명,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 3월 이후로는 양쪽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최근 2022년 3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10월 1,237명, 11월 1,623명, 12월 1,007명, 2022년 1월 1,162명, 2월 2,934명, 3월 1,397명, 4월 2,231명, 5월 3,701명, 6월 5,855명, 7월 11,789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최근 2022년 3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47명, 9월 2,224명, 10월 1,921명, 11월 2,021명, 12월 1,064명, 2022년 1월 1,264명, 2월 913명, 3월 6,694명, 4월 7,699명, 5월 8,805명, 6월 11,200명, 7월 20,4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7월 상황

- <표9>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7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19년동월대비 방한일본인 및 방일한국인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방한일본인 및 방일한국인 모두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7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7월	2022년7월	증감률	2021년7월	2022년7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83,005	263,986	218.0	전체	51,055	144,500	183.0
방한 일본인	881	11,789	1238.1	방일 한국인	1,808	20,400	1028.3
일본인 비중	1.06	4.47		한국인 비중	3.54	14.12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7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263,98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8.0%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1,78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38.1%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1년 7월 1.06%에서 2022년 7월 4.47%로 증가하였음
- 2022년 7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44,5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3.0%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20,4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28.3%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1년 7월 3.54%에서 2022년 7월 14.12%로 증가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31,882,049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출국일본인수 20,080,669명보다 11,801,380명 더 많음

-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부터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방일외객수는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으로, 출국일본인수는 2020년 3,174,219명, 2021년 512,244명으로 되었음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2년 7월 상황

- <표10>은 2022년 7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체 수가 COVID-19 영향으로 2019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2021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 2022년 7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144,500명으로 2019년동월(2,991,189명)대비 95.2% 감소하였고, 전년동월(51,055명)대비 183.0%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20,400명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028.3%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14,800명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276.5%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3,900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610.4%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네시아인 수는 7,200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900.0%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필리핀 수는 6,90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293.9%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22,700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5735.5%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14,100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29.7%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2년 7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7월		2021년 7월		2022년 7월		2019년 동월대비 증감률 (%)	2021년 동월대비 증감률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전체	2,991,189	100.0	51,055	100.0	144,500	100.0	-95.2	183.0
한국	561,675	18.8	1,808	3.5	20,400	14.1	-96.4	1028.3
중국	1,050,420	35.1	3,931	7.7	14,800	10.2	-98.6	276.5
대만	459,216	15.4	549	1.1	3,900	2.7	-99.2	610.4
홍콩	216,810	7.2	253	0.5	1,100	0.8	-99.5	334.8
태국	73,202	2.4	233	0.5	4,800	3.3	-93.4	1960.1
싱가포르	21,716	0.7	172	0.3	2,000	1.4	-90.8	1062.8
말레이시아	22,957	0.8	233	0.5	1,600	1.1	-93.0	586.7
인도네시아	25,215	0.8	360	0.7	7,200	5.0	-71.4	1900.0
필리핀	37,771	1.3	495	1.0	6,900	4.8	-81.7	1293.9
베트남	40,762	1.4	389	0.8	22,700	15.7	-44.3	5735.5
인도	13,222	0.4	376	0.7	4,200	2.9	-68.2	1017.0
호주	34,873	1.2	1,570	3.1	2,300	1.6	-93.4	46.5
미국	156,865	5.2	6,139	12.0	14,100	9.8	-91.0	129.7
캐나다	29,285	1.0	1,545	3.0	1,600	1.1	-94.5	3.6
멕시코	8,661	0.3	477	0.9	400	0.3	-95.4	-16.1
영국	28,928	1.0	3,420	6.7	2,900	2.0	-90.0	-15.2
프랑스	34,634	1.2	2,515	4.9	3,600	2.5	-89.6	43.1
독일	18,593	0.6	2,175	4.3	3,500	2.4	-81.2	60.9
이탈리아	13,566	0.5	1,728	3.4	1,400	1.0	-89.7	-19.0
스페인	15,771	0.5	1,433	2.8	800	0.6	-94.9	-44.2
러시아	9,005	0.3	1,197	2.3	800	0.6	-91.1	-33.2
중동지역	6,813	0.2	988	1.9	900	0.6	-86.8	-8.9
기타	111,229	3.7	19,069	37.3	22,600	15.6	-79.7	18.5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2년 8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8월 25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20년	2021년	2021년 10-12월	2022년 1-3월	2022년 4-6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2022년 7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4.6	1.7	0.5	0.7	1.1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1.8	1.2	0.2	0.0	-1.0	-1.0	-1.7	-0.7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9.5	13.2	9.5	4.4	-0.8	-2.5	-1.9	1.5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81.5 -9.9	85.6 5.0	85.5 6.1	87.3 4.9	85.2 -1.3	88.5 2.4	82.8 -4.3	84.5 -2.2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6	-13.9	-10.8	-8.7	0.3	-21.5	-6.2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1.7 -6.4	12.2 5.1	1.3 1.4	-0.8 1.3	-3.1 P -1.1	-4.4 -9.0	-3.5 4.7	-1.5 P 1.3	P -2.0 P 2.3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0.4	5.6	0.9	-0.6	-3.7	-4.9	-3.1	-2.8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27.3	41.8	24.7	13.7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7,773 -7.2	6,030 -22.4	1,539 -12.1	1,504 -3.2	1,556 4.4	486 1.8	524 11.0	546 0.9	494 3.7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8	2.8	2.7	2.7	2.6	2.5	2.6	2.6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1.2 0.0	4.5 -0.2	8.4 0.5	9.2 0.9	9.6 2.4	9.9 2.5	9.3 2.5	9.4 2.4	P 8.6 2.6
<금융> 닛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달러)	22,705 106.73	28,836 109.89	28,810 113.70	27,156 116.32	26,891 129.71	27,043 126.04	26,653 128.78	26,958 133.86	26,986 136.63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2년 7월, 8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가계조사’ (6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1.5% 증가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6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1.3% 감소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고, 소비자 심리는 약세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여행 및 외식은 최근 감염 확대에 따른 부진이 보이지만, 회복 경향에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의 정상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회복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1-3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2년 1-3월기는 전기(前期)대비 0.3%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동(同) 1.7% 증가, 비제조업이 동(同) 0.3% 감소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6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산업의 2022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대체적으로 보합상태로 되어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건설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자가주택 착공은 보합상태로 되어 있음
-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착공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총 호수는 6월에 전월대비 2.1% 증가인 연율 84.5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로 되어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바닥의 견고함이 증가하고 있음

- 6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2.6% 증가, 7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9.0% 감소, 6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10.4% 증가하였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예산의 집행에 따라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7월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5.2% 감소하였음
 -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6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되었음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6월에 전월대비 9.2%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6월에 전월 대비 1.9% 증가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7월은 전월대비 3.8% 증가, 8월은 전월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생산용 기계 및 전자부품·디바이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외경기의 하향 등에 따른 영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 관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차 산업 활동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
- 기업 이익은 일부 약세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이고, 도산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상장기업의 2022년 4-6월기 결산을 보면, 경상이익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년 대비 이익증가로 나타났음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임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6월 546건 이후 7월은 494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회복되고 있음
 - 완전실업률은 6월에 전월과 같은 수준인 2.6%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수는 증가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보합상태임
 - 취업률은 회복되고 있고, 신규구인수, 유효구인배율 및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는 최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금급여총액은 회복되고 있고,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음
 - 일본은행 短觀(6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일일 유효구인건수나 민간의 구인 동향은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도 상승하고 있음
 - 7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4% 상승하였고, 하계전력요금 조정 후에도 전월대비 0.3%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기업 대상 서비스 가격 기초를 ‘국제운수를 제외한 기준’으로 보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기초를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승하고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 (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7월에는 전월대비 0.3% 포인트 감소하여 93.9%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당분간 상승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 후 하락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고 후 엔저로 추이함
 - 주가는 27,000엔대에서 29,200엔대로 상승하였다가 28,400엔대까지 하락하였음
 - 엔/달러 환율은 136엔대에서는 130엔대까지 엔고로 추이하다가 137엔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2%대에서 -0.00%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2.1%(7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2.8%(7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3.4%(7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2년 8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8월 25일)

- 코로나19 감염증 및 세계적인 물가급등에 대한 대응, 에너지 안정공급 확보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국민생활과 일본 경제를 지켜나감
- 금후에도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재정 운영의 틀을 견지하고, 민간수요 주도의 자율적인 성장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경제상황 등을 주시하고, 주저 없이 기동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실행해 나감
- ‘코로나극복·신시대개척을 위한 경제대책’을 구체화하는 2021년도 보정예산 및 2022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
 - ‘코로나 재난에서의 「원유가격·물가급등 등 종합긴급대책」’을 실행함과 더불어,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에서 당장의 물가 및 경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9월 상순을 목표로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예비비를 기동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감
 - 또한, 상황에 맞게 예전 사례에 얽매는 일 없이, 끊어짐 없이 대담한 대책을 강구해 나감
- 골태방침(骨太方針)2022 및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책을 착실히 실행함과 더불어, 이를 앞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방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김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중소기업 관련 정책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인재 확보 지원
 -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 부장관은 8월 1일의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관방에 해외비즈니스투자지원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음
 - 요코하마은행, 시즈오카은행, 오사카신용금고 등 90개 이상의 지역은행과 신용금고가 중개역할을 하여, 대기업의 인재를 중소기업에 소개하는 조치가 시작됨
 - 고도로 숙련된 인적자원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함
 - 일본 정부는 대기업 이직, 부업 희망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인 레비캐리(REVICareer)를 8월 26일 개설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가 관리함
 - 레비캐리는 지방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대기업 인력 데이터베이스로 2021년 10월에 본격 가동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취지에 찬성한 80여 개 대기업의 인재들이 인사부를 경유로 하여 레비캐리에 등록할 수 있었으나, 8월 26일 이후에는 개인 등록 금지가 해제됨
 -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이직이나 부업을 원하는 개인이 등록하면, 지방은행 등이 인력 매칭을 맡게 됨
 - 또한, 금융청은 레비캐리 등록인력에게 지방기업에서 일하기 위한 연수, 인턴십 등 23개 프로그램을 무상제공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를 메우기 위해 이직이 결정되면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 엔의 보조금을 줌

(출처: 산케이신문, 2022.08.01.; 닛케이신문, 2022.08.26.)

□ 경제안전보장 강화 및 소비자태도지수

- 경제안전보장 강화 및 소비자태도지수의 상승
 - 일본 내각부는 2023년도 예산의 개산요구(概算要求)를 발표하고, 경제안전보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특정 중요기술’의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2023년

도 출범 예정인 싱크탱크 신설비용으로 25억 엔을 포함시켰음

* 개산요구(概算要求): 일본정부의 각 성이 재무성에 대해 다음 연도 정책실행에 필요한 대략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것

- 무기 개발로의 전용을 막기 위한 ‘특허 비공개’와 관련하여 시스템 정비비로 25억 4,000만 엔을 계상하였으며, 반도체 및 의약품 등이 상정되는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필요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항목만 기재하는 ‘사항 요구’로 함
- 5월에 성립된 경제안보추진법 중 핵심 물자의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 개발 지원은 8월 1일 선행 시행되고 있으며, 기간인프라의 안정적 제공 확보와 특허 비공개는 내년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 8월 31일에 내각부가 발표한 8월 소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태도지수는 32.5로 7월보다 2.3포인트 상승했음
- COVID-19 감염 확산 방지책으로서의 이동 제한이 없었고, 오봉(お盆)기간 동안 인파가 증가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었음
- 소비자심리의 기초판단에 대해 내각부는 약화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했으며,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93.8%였음

* 오봉(お盆): 양력 8월 15일에 지내는 일본의 명절임

(출처: 산케이신문, 2022.08.31.; 닛케이신문, 2022.08.31.)

□ 축전지 인력 개발 확보 및 수소 보급 추진

○ 일본 정부의 축전지 인력 개발 및 확보

- 일본 경제산업성은 8월 31일에 칸사이 지역의 축전지 산업에서 일하는 인적 자원 개발 촉진을 위한 산관학 협력인 칸사이 축전지 인재육성 등 컨소시엄(関西蓄電池人材育成等コンソーシアム)을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 축전지는 전기자동차(EV)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임
- 2024년도에는 공업고등학교 및 고전문(高専) 등에서 축전지 전문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인적자원 확보를 가속화할 것임
- * 고전문(高専): 고등전문학교의 약자이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중학교 졸업생을 받아들여 5년간 일관하여 기술자교육을 실행하는 고등교육기관임
- 2030년까지 일본에서 150기가와트시의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같은 해

까지 3만 명의 축전지 인력 개발 및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2.08.29., 2022.08.31.)

- 수소와 암모니아의 보급 추진을 위한 조치
 - 경제산업성은 연소시에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와 암모니아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조치의 검토에 들어갔음
 - 수소는 현재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비싼데, 이러한 차액을 공급기업에 보조하는 제도를 마련함
 - 수소 공급 비용은 벌써 0도, 1기압 표준상태로 환산하면 1m³ 당 100엔 정도로 LNG의 약 10배에 달하며,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20엔 정도로 석탄의 3배 수준임
 - 화석연료로 만든 수소와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만 당분간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장래에는 배출량 실질 제로가 약속되는 조건을 마련함
 - 수요 창출과 공급망 구축을 일체로 추진하기 위해 콤비나트에서의 인프라 정비도 뒷받침함
 - 발전소나 제철소 등 수소나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산업이 집적되면 효율이 높아지므로 기업이 공유 인프라로 사용하는 저장탱크나 파이프라인을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함
 - 후쿠오카시는 서부가스(西部ガス), 세이코전기제작소(正興電機製作所), 토요타통상(豊田通商), 큐슈전력그룹(九州電力グループ)의 서일본플랜트공업(西日本プラント工業), 미츠비시화공기(三菱化工機) 5사와 하수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부터 만들어진 수소의 보급을 위한 협의회 ‘후쿠오카시 그린수소 활용 추진협의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 후쿠오카시는 9월 26일부터 시내 수소 스테이션을 운영해 수소를 FCV(연료전지차)에 공급할 예정임
 - 바이오가스로부터 추출한 메탄과 수증기를 반응시켜 수소를 제조하는데, 12시간 가동했을 경우 FCV 60대분의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함
 - 기업과 협력하여 비용 절감과 수요 개척 등 수소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함

(출처: 닛케이신문, 2022.08.26., 2022.08.29.; 산케이신문, 2022.08.29.)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싱가포르에 제조 플랜트 신설 및 이산화탄소 자원화

- 싱가포르에 터프머 제조 플랜트 신설 및 이산화탄소 자원화
 - 미쓰이화학(三井化学)은 자동차 부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지인 터프머의 제조 플랜트를 싱가포르에 신설한다고 밝혔음
 - 플랜트는 2024년 내에 완공될 예정으로 생산능력은 연 12만 톤으로 전망하는데, 아시아시장을 중심으로 전망되는 차 부재나 태양 전지 관련재 수요 증가에 대응함
 - * 터프머: 범퍼나 내장재 등 자동차 부재 외에 식품 포장 필름 등에 기능을 추가하는 수지 첨가제
 - 도쿄공업대학과 홋카이도대학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효율을 플라즈마를 이용해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음
 -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만드는 화학반응에 지금까지 주로 열에너지를 사용했는데, 플라즈마는 전기로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존보다 3배의 효율로 화학품의 원료가 되는 일산화탄소로 변환할 수 있었음
 - 실용화를 위해 실험에 사용한 장치를 대형화하고, 이산화탄소의 자원화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반응에도 응용하고, 귀금속 미사용의 값싼 촉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2.08.29., 2022.08.30.)

□ 차량용 전지 관련 산업 동향

- 차량용 전지 관련 일본 기업 동향
 - 토요타자동차(豊田自動織機)는 아이치현에서 새로운 전지공장 ‘이시하마 공장(石浜工場)’을 10월부터 가동시킨다고 발표했다음
 - 이 공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용 전지의 양산을 담당하며, 월 생산능력은 자동차 2만대 분이라고 함
 - 2021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아이치현(愛知県) 오후시(大府市)의 교와 공장(共和工場)

- 과 함께 4만대 분의 능력을 확보하여 전동차 수요 증가에 대비함
- 토요타자동차가 이시하마 공장과 교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바이폴라형 니켈 수소 전지’로 기존의 전지에서 각각 독립되어 있던 양극과 음극을 1장의 집전체에 집약하여 전지를 소형화하였음
 - 혼다는 8월 29일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에 EV 탑재용 리튬이온 전지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연내 합작회사를 설립해 LG가 51%, 혼다가 49%를 출자하며, 신공장은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25년 중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함
 - 토요타자동차는 8월 31일 일본과 미국에서 EV(전기자동차) 공급을 위해 차재용 전지에 최대 7,300억 엔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음
 - 토요타자동차는 2030년 EV 세계 판매량을 350만 대로 끌어올리고 30개 차종을 투입할 계획으로 2030년까지 전동화에는 8조 엔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중 차량용 전지에 2조 엔을 투자하며 이번 투자는 그 일환임

(출처: 닛케이신문, 2022.08.30.; 산케이신문, 2022.08.29., 2022.08.31.)